

뉴스페이스 시대 상생발전 협력...“산업 생태계 확대”



노관규 순천시장(왼쪽)과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위케이션센터에서 우주항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산업 업무협약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위케이션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산업의 공동협력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인공위성, 항공, 우주발사체 등 국가 항공우주기술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다누리 달 탐사선, 누리호의 발사 성공 등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 우주항공 대표 연구기관이다.

협약식은 시의 우주항공산업 추진현황 설명과 의견 공유, 양 기관장이 직접서명한 협약서 교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시의 우주항공 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우주항공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우주항공계열 최고권위대학인 KAIST와의 간담회, 이번 항우연과의 업무협약에 더해 우주항공 주요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와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우주항공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R&D와 인력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시는 관·연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전남도는 도 분청과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찾아가는 장애인건강지킴이’, ‘강진 반값 여행’ 등 부문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심사를 거친 후 도 부문 7개 부서의 시군·공공기관 부문 13개 기관이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발표심사에선 도민 체감, 적극성, 중요도, 확산가능성, 4개 항목을 중점 평가했다.

평가 결과 도 부문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의 ‘찾아가는 장애인건강지킴이’ 사례가, 시군·공공기관 부문은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소비를 촉진한 강진군의 ‘전국 최초 강진 반값 여행’ 사례가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여순사건 유적지 전라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안내 서비스 개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품고 재난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다’ 사례 등 총 1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동부경찰

민관합동 3대 범죄예방 캠페인

광주 동부경찰청은 31일 남광주시장에서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질서문화 조성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남광주시장을 방문한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교통질서(5대 반칙완전 금지), 생활질서(광고물 무단 부착 금지 및 쓰레기 투기 등 금지), 서민경제질서(노쇼, 매크로이용 등 양표매매, 주취 폭력 근절 등)에 대한 전단지 및 홍보물을 배부하며 거리 홍보에 나섰다.

동부경찰청은 9월까지 전통시장과 충장로 일대를 찾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치안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오는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안유성’ 대한민국명장을 위촉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에 안유성 명장

내달 20~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서 개최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오는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안유성 대한민국명장을 위촉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들이 그간 준비한 기량을 제대로 겨루는 국내 최고의 기술 경연대회이자 숙련기술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는 숙련기술인의 대축제이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숙련기술인 안유성 명장을 제60회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대회를 홍보하고, 참가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2023년 대한민국명장 조리 분야 오

리 직종에 선정됐으며 최근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요리의 품격과 조리 기술의 깊이를 선보여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안씨는 “숙련기술인에게 꿈의 무대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해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젊은 세대가 기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운영위원장인 윤옥균 본부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를 맡아주시는 안유성 명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젊은 기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축제가 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gdw0918@gwangnam.co.kr

곡성군, 3년만에 7호 아너소사이어터 탄생

유장수 동막영농조합 대표...“지역사회에 나눔 실천”

곡성군은 최근 유장수 동막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곡성 7호(전남 159호)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1억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식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유장수 신규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등이 참석해 인증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유장수 회장은 곡성 동막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이번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가입 전부터 매년 곡성군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올해에는 아너소사이어터 가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5년간 전달된 1억원의 성금 또한 곡성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장수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곡성군은 최근 유장수 동막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곡성 7호(전남 159호)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있어 더욱 기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해 준 유장수 회원에게 감사드리며, 전달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전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조선간호대·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MOU 체결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 협력 약속

조선간호대학교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30일 대학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과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지역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명희 총장은 “이번 협약은 조선간호대의 산·학·연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정주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진 센터장은 “통합돌봄 허브 대학인 조선간호대의 협약으로 통합돌봄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취·창업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간호대학교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30일 대학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선간호대의 간호·보건 분야 전문성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네트워크와 결합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정리수납전문가 통합 과정(1·2급)을 9월 중 개발에 운영할 계획이며 조선간호대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도 활발히 진행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지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운세 (음력 6월8일)

48년생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라
60년생 근심은 사라지고 문서가 들어 온다
72년생 불화가 있었으나 자중하라
84년생 객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라
96년생 선배와 금전 거래 주의

51년생 뺑소니 등을 조심하라
63년생 뜻은 있으나 동력이 약한 이치다
75년생 둘 다 취하려면 다 없는다
87년생 귀하의 혼담이 무르익을 운
99년생 자만심은 금물이니 겸손하라

54년생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66년생 어려움을 겪은 뒤 안정을 찾겠다
78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
90년생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이다

57년생 문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라
69년생 술선수변 한다면 따르게 돼 있다
81년생 재수대길이라
93년생 서둘지 말고 깊이 생각 후 결정하라

49년생 남과 말 다통하지 말라
61년생 평소처럼 일처리를 하라
73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의외로 쉽게 결정된다
97년생 주의 사람의 청송을 받는다

52년생 동분서주하니 분주하기만 할 뿐
64년생 작은 돌 피하려다 큰 돌에 치인다
76년생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으면 힘들다
88년생 인생의 달콤함을 알라

55년생 감격스러운 일이 터지리라
67년생 오랫동안 부탁하면 해결된다
79년생 여자의 꼬임을 주의하라
91년생 뒷사람 도움으로 발전한다

58년생 전업이나 신규사업은 삼가하라
70년생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치지 말 것
82년생 고난은 성공에 길
94년생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잠은 문서에 마가 끼고 장애가 많다
62년생 중상을 벗어나면 곁들 수밖에 없다
74년생 여자로 인한 구설수를 주의
86년생 일이 꼬이고 금전 막혀 갑갑한 날
98년생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행 떠나라

53년생 귀하의 의지대로 행하라
65년생 말을 귀담아들으면 득을 보리라
77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이 불안한 하루다
89년생 지금 회전이 용이해지는 운

56년생 가족이 늘어나는 운
68년생 필연적이라면 적극 나서라
80년생 부동산 투자 유혹이 많은 날
92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59년생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
71년생 지금은 다소 혼란스럽다
83년생 지위가 오르고 효과적인 날
95년생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